

세단 못지않는 민첩성 .. 오프로드 주행감도 탁월

기아차 SUV '더 뉴 모하비' 타 보니

정속함에 파워까지, 코너링도 안정적
디젤엔진 탑재 불구 소음·진동 적어
대형차지만 연비 리터당 10km 수준

기아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하비가 돌아왔다. 8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된 '더 뉴 모하비'는 고급 스텔라워진 디자인에 유로6 기준에 맞춘 디젤엔진을 탑재했다.

14일 시승에 앞서 마주한 더 뉴 모하비 첫인상은 '크다'였다. 전장만 4930mm로 전작의 4935mm보다 살짝 짧아졌지만 모하비 특유의 웅장한 외관을 그대로 이었다. 특히 큰 덩치에 각진 차체가 강인함을 더했다.

실내는 외관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다. 묵직한 차문을 열자 켈팅무늬의 나파가죽 시트와 클래식한 우드그레인인 먼저 눈에 들어온다.

플래그십 SUV다운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이다. 센터페시아에는 기존보다 1인치 커지고 UVO기술 적용으로 사용이 편리해진 신규 내비게이션과, 공조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잘 정렬되어 있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툼한 스티어링휠과 선명한 계기판 역시 새롭게 바뀐 부분으로, 고급 세단에 필적하는 집감과 조작 편의성을 갖춰 국산 최고의 SUV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시승코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발해 제2순환로를 지나 무등산장과 원호사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약24km구간이다. 무등산 일주도로 구간으로 가파른 계곡, 급한 코너링에 오프로드와 비슷한 구간이다.

◇시승차량 사양

- 트림명: 더 뉴모하비 3.0 디젤프리미엄트상시 4WD 풀옵션
- 차량가격: 5029만원
- 연비: 복합 10.2km/ℓ (도시 9.0km/ℓ · 고속 12.2km/ℓ)

운전석에 오르자 주변 차들은 모두 아래로 보였다. 주행 중에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 국내 전통 SUV 중 3.0ℓ급 엔진을 탑재한 것은 모하비가 유일하다.

최고출력 260마력, 최대토크 57.1kgf.m에 달한다. 대형차지만 연비는 ℓ당 10km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성도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

시동을 켜자 6기통 엔진 특유의 '그르르' 하는 묵직한 배기음이 인상적이다. 디젤엔진이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언뜻 가솔린 차량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억제되어 있는 모습이다.

호남고속도로를 지나 제2순환도로에 올라 속도를 높여봤다. 더 뉴 모하비는 육중한 덩치가 무색하게 빠른 응답성을 보이며 무섭게 속도를 올린다. 빠르고, 높고, 거대한 차체 속에서 길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기분은 마치 내가 도로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14일 기자가 탄 더 뉴 모하비 차량이 무등산 일주도로 옆 비탈길을 힘차게 오르고 있다. <기아차 제공>

추월가속을 위해 다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가속해봤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탄탄하게 자세를 잡아 큰 덩치에도 전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구매 고객 70%가 남성인 '남자의 차' 모하비가 안락함까지 더한 느낌이 들었다. 코너링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는 전륜

서스펜션에 유압식 리바운드 스프링을 장착하고 속업소버(완충기)도 새롭게 튜닝한 효과다. 다만 고속주행에선 스티어링휠의 무게감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도시를 벗어나 무등산 일주도로에 진입하자 오프로드 모하비의 본능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덩치 큰 대형 SUV여서 가속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종일관 넉넉한 출력을 뽐내는 엔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후륜8단 변속기의 실력 앞에 그 걱정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워 외에도 다양한 편의·안전장비는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종일관 믿음

직스러운 주행을 하게 해 과연 대한민국 최고급 대형 SUV 다운 면모를 자랑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원격시동 및 공조제어 등 유보(UVO) 2.0 ▲후측방 경보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등을 장착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 뉴 K7 여성고객 차량 응급조치 설명해 드려요”

기아차 '레이디 케어'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올 뉴 K7'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사용방법과 차량관리 요령 등을 설명해주는 '레이디 케어(Lady Care)' 서비스를 자동차 업계 최초로 실시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청한 장소로 전문 엔지니어가 방문해 차량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기능의 사용 방법과 일상적인 차량 점검, 응급조치 요령을 설명해준다. 출고 100일 이내의 올 뉴 K7을 운행

하는 여성 고객이면 누구나 레이디 케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운전자는 5월 4일까지 기아 레드멤버스 홈페이지(http://red.kia.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실제 차량 소유주가 남성이라도 운전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아차 멤버십 브랜드 '기아레드멤버스'가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아차는 지난 2월부터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레이디 케어 서비스를 실시해 여성 운전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아차는 신청 고객에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기아차

가 직접 제작한 운전 교육 관련 콘텐츠 '드라이빙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벤츠 '더 뉴 C클래스 쿠페' 2분기 국내 출시

메르세데스 팬스 나이트서 공개 벤츠 C클래스 중 가장 스포티

메르세데스 벤츠의 '더 뉴 C클래스 쿠페(The New C-Class Coupe)'가 오는 2분기에 국내 출시된다.

벤츠 코리아는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16 메르세데스 팬스 나이트' 행사에서 이 차량을 국내 최초 공개하고 올해 2분기에 판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차량은 벤츠 C클래스 중 가장 스포티

한 모델이다. 경량 구조와 뛰어난 공기역학, 고성능이지만 효율적인 엔진도 돋보인다.

'더 뉴 S클래스 카브리올렛(The New S-Class Cabriolet)'은 1971년 이후 벤츠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4인승 럭셔리 오픈 탑 모델로 오는 3분기 출시된다.

'더 뉴 SLC(The New SLC)'는 프리미엄 콤팩트 로드스터 SLK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오는 3분기에 국내에 선보인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영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